

유성문화원 30돌

정월대보름제

전통민속문화시연 및 행사

등구나무제, 목신제, 서낭제,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아랫자띠,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가운데자띠,
옥녀봉 산신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유성이전통단

젊음과 예술, 그리고 청춘!

신입 기자단 인터뷰

문화유성

2024 Vol. 227

www.yuseong.or.kr



08



02 유성문화원 30돐

14



14 전통민속문화시연 및 행사

등구나무제, 목신제, 서낭제,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아랫자띠,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가운데자띠,
옥녀봉 산신제

28



2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유성이전통단

30 젖음과 예술, 그리고 청춘!

34 신입 기자단 인터뷰



유성문화원 원장과의 대화

30

“
유성문화원 30돌,
앞으로의 여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원장 이재웅



▶ 유성문화원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유성문화원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추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저희의 노력과 열정이 이렇게 풍성한 업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30주년을 맞아 유성문화원은 특성화사업을 통해 연간 10회의 인문학 강연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변화와 성취가 있었나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재활용사업 중 향교서원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외국인, 주부,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전문가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성문화원의 많은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분들의 관심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성문화원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떠한가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전통을 고수하며 유성문화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다양하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매년 지역의 다양한 층위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문화 활동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유성문화원의 임직원들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성문화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30여 년의 명맥을 이어 앞으로의 30년 이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0년간 유성문화원을 함께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



2023 대한민국 문화원상 프로그램 부문 수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한국무용으로!!

김명선, 이영순 수강생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자매처럼 다정하게

유성문화원에서 한국무용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두 분을 만났다.

❶ 한국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김명선 수강생

“한국의 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 한국무용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지루할거라 생각했는데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니 심층적으로 안정이 되어갔어요. 신장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무용을 하면서 자세도 바로잡으니 건강해졌어요. 심신이 안정이 되어간거죠.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병원에서 최근 검사 해보니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몸이 좋아지니 활력소가 되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무용을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얻어 너무 좋아요.

이영순 수강생

한국무용은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를 무용을 통해 표현해내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무용을 좋아했고 결혼하고 사회에 나와서 무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대전에 문화센터가 없을 때부터 조금씩 배우다가 유성문화원이 건립되고 전공 선생님에게 배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20년 차가 되었고 한곳에서 한 선생님께 배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양한 공연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❷ 한국무용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근래 와서는 제 친구들이 무릎과 관절이 많이 좋지 않은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괜찮아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한국무용 이다.”라고 생각해서 입문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❸ 공연 참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천안 흥타령 축제에 참가하여 빛을 발하기도 했어요. 무릎 아프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만 따라준다면 정말 끝까지 하고 싶은 운동 중의 하나가 한국무용이에요.

지금 수강생이 20명 정도인데 40~80대 까지 다양해요. 반 분위기가 좋아서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기도 했어요. 예총에서 한국 무용팀이 초청받은 적도 있는데, 용기 내어 참가하여 공연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적으로 무대에 도전하는 열정이 훌륭하다. 체력도 건강도 따라주니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무용을 통해 안정된 마음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해질 수 있다.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며 활동 및 건강 개선에 대단한 힘이 되었다. 유성문화원이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멋진 인생! 남은 인생도 화이팅!

청풍명월(淸風明月) 무용에 젖어든

안상희 수강생



부채도 자유로이! 청풍명월 수업

❶ 청풍명월은 무엇인가요?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춤추는 것, 한국무용의 일종인데 청풍명월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❷ 청풍명월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그냥 배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 선생님 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산조를 배우고 싶은데 그냥 손만으로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부채로 할 수 있는 산조가 바로 청풍명월이에요. 부채를 들고 산조 춤을 추는 것이 청풍명월이에요.

❸ 처음부터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하. 그냥 50대 후반에 입문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전민동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셨지요.

❹ 청풍명월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을까요?

건강해지고 한국무용 춤을 배우면서 자세도 좋아졌어요.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발이 서지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한국무용은 나이 많은 엄마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근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니 신체가 건강해지더라고요.

❺ 수강생은 몇 명인가요?

현재는 25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15명이었거든요.

❻ 공연도 하지요?

네! 공연하죠. 우리 총무님(이미정)은 공연대장이지요. 유성문화원과 다른 문화원, 동춘당에서도 공연했습니다. 청풍명월을 배우면서 활력소가 되고 힐링도 되고 건강해지고 여려가지로 좋아요. 사람은 항상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춤추러 오면 고통이 사라지면서 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이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도 춤 배우면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기 취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춤을 너무 잘 선택했다 싶어요.

❻ 20년 정도 춤을 통해 어떤 경지에 올랐을 것 같은데요?

춤도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젊었을 때 배운 것과 좀 다르긴 해요. 젊어서 그냥 예쁘고 춤만 잘 추면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내면의 구조적인 여러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슬픔, 기쁨, 어려움 속에서 춤을 배운다. 춤은 희노애락을 표현하며 자유로워진다. 인간 내면의 구조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춤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성장하며 마음의 깊이는 더욱 단단해 진다. 깊은 심연으로 더욱 견고해 짐을!

브라보 언제나 청춘 즐거운 김정선 노래교실

정춘정 수강생



언제나 즐거운 정춘정 수강생

20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성문화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교양강좌가 다양하다. 그중에 “김정선 노래교실”이 있다. 이 수업의 오래된 수강자 정춘정님을 만났다.

본인 소개와 강좌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간 김정선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김정선 노래교실’을 통해 최고의 선생님과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최고의 힐링이에요. 수강생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죠.

유성문화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겠어요.

직원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요. 모든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죠. 서로 가족처럼 잘 챙겨 줍니다. 저는 수강생들과 매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유대를 깊게 하죠.



수강생들과 함께 흥겨운 노래교실

김정선 노래교실을 다니시며 장점이 있다면요?

김정선 노래교실 수강생은 무려 80여명이에요. 문화 강좌 중 최다 수강생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강좌를 통해 늘 긍정적이고 데울 베풀며 사니 행복이에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노래! 언제나 즐거운 청춘! 브라보!
정춘정님의 앞길에 건강과 즐거운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래본다. 영원한 청춘으로~



언제나 즐거운 김정선 노래교실

팬플루트의 매력에 스며든

황의만 수강생



팬플루트 연주하는 황의만 수강생

공연을 많이 하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1년에 두세 차례씩 마을축제에 참가했어요. 요양원,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도 했지요. 유성문화원이 주최하는 온천문화축제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지요.

음악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요?

고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한 황의만 수강생은 재직시부터 팬플루트를 배워 학교 축제, 수학여행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학생들과 요양원 등에 봉사활동을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졸업식을 음악 축제로 하자는 제안에 따라, 상장 전달식 위주로 진행하던 졸업식을 음악회를 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모임, 고등학교 동창회, 인문학포럼행사, 송년회 등에도 팬플루트를 이용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악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는 플룻 관리하는 것처럼 면으로 걸을 닦아주고 면을 봉에 감아서 관 속을 닦아줍니다. 저는 관 속을 닦은 다음 라벤더 향을 묻혀 한번 더 닦아서 음악과 라벤더향을 함께 즐기면서 연주합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수강생들

새봄맞이 정월 대보름 행사 열려

• 구민이 한마음으로 지신밟기 참여 •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겨울 장마 같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스한 23일 오후 4시, 유성구 벽천 분수 앞에서는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이 주최·주관하고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후원한 '2024 정월 대보름제'에 기관장과 200여 명의 구민이 같이 했다.

진행을 맡은 이윤미(유성문화원) 사무국장은 "정월 대보름날을 맞아 우리 풍속도 체험하고 또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며 "유성 풍물연합회의 신나는 풍물놀이와 함께 갑진년 청룡의 활력 넘치는 기운을 받아서 정월 대보름제의 서문을 활기차게 열었습니다"고 인사했다.

이 사무국장은 정용래 유성구청장,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장과 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김기동 대보름제 추진위원장과 이사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윤미(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송봉식 구의회 의장

김기동 추진위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작년에 우리가 처음 여기서 본 행사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문화원 이사님들과 같이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대보름 축제에 먼저 문 열어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풍물단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 가능하면 내일 보름날 보름달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올 한 해 좋은 그런 기원도 하시고 또 소원도 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송봉식 구의회 의장은 "예로부터 설 명절, 보름 명절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로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곡밥도 해 드리면서 1년 운수 대통을 비는 그런 날입니다"며 "이 좋은 날에 우리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날씨가 아직은 차갑습니다. 가족들 건강 또 행복하시고 하는 일들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갑진년 새해에 작년까지 있던 나쁜 기운이나 악귀들이 새해에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슬금슬금 넘어온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행진을 하면서 다 쫓아내고 유성구가 말 그대로 편안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김기동 추진위원장은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협조 해주신 주민자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며 “이재웅 원장님과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문화원 직원들이 준비했는데, 와서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소원을 빌면 꼭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행사장에는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 놀이와 소원엽서 작성, 한 해의 소원을 담는 청사초롱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식전 행사로 열린 각 동에서 7명이 한 조가 되어 겨룬 출렁기대회는 노은 2동, 전민동, 원신흥동이 14회씩 기록해 공동 우승했다.

행사를 마친 참가는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새해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유성구청 벽천 분수 앞에서 하천을 따라 30여 명의 유성 풍물연합회를 선두로 기관장과 참가자가 유성문화원까지 걷는 지신밟기를 했다. 쾌자로 단장한 정 구청장, 송 의장, 김 추진위원장이 청사초롱을 들고 앞서고 다수의 문화원 이사와 미리 참가 신청을 한 구민들이 동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뒤를 따랐다.



충남대 오거리를 건너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환영하는 구민들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다. 유성문화원에 도착한 일행은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유순 씨는 “오랜만에 전통 놀이를 체험하니 날씨는 차갑지만, 마음만은 훈훈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었고, 지신밟기를 하고 보니 고향 친구들이 생각나네요”라며 추억을 떠올렸다.



사진으로 보는 정월대보름제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구즉동 둥구나무제

520여년 동안 구즉동을 지키는 수호목,
둥구나무를 중심으로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중심에는 매년 정월 열나흘날에 진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있는 우람한 둥구나무를 중심으로 구즉동 둥구나무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8로 지정된 둥구나무는 이 지역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령이 520년 넘은 나무의 오랜 세월만큼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살펴 왔습니다.

매년 정월 열나흘날 둥구나무를 중심으로 목신제가 열립니다.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마을 농악단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합니다. 제물로는 흰쌀, 삼색실, 명태, 과일, 그리고 담근술을 사용 합니다. 특별히, 향과 고기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절은 한 번씩만 합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관을 비롯한 마을 유지와 주민들이 나무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문을 낭독합니다. 이어서, 소지라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흰 종이를 태워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을 기리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 줍니다.

이종희 둥구나무제 보존회 회장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목신제를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이 행사가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 간 친목을 다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회고합니다.

1997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즉동 둥구나무제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구즉동 둥구나무제는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는 마을 주민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이 목신제가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목신제는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구즉동 둥구나무는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매개체이며, 소속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둥구나무 아래서 매년 이어지는 목신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니까요.





원내동 목신제

어울림 풍물단의 지신밟기가 어엿한 단오 행사로 자리 매김한 원내동 목신제

유성문화원 조수진 기자

목신제라 함은 목신에게 지내는 '안녕' 행사라고 보면 된다. 마을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행사인데 전통적으로 동네마다 서낭당도 있지만 원내동에는 수령이 25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진잠 주민센터 안에 있다. 주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그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시작된 행사인데 원내동 목신제의 전신은 출발선이 조금 특별하다.

1993년도에 진잠동 농악단이 창단되어 활동하다가 후배들이 생겨나자 차츰 농악단 1세대들이 후배들에게 농악단을 물려주고 이들은 2선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기엔 아쉬워 만들게 된 1세대 농악단의 동호인 모임이 '어울림 풍물단'이다.

이때 25명 정도 인원이 어울림 풍물단원으로 결성이 되어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대보름 당일까지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신밟기의 시발점으로 목신제를 지냈고 목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 원내동 목신제의 첫 출발이었다. 목신제의 특별한 의미는 우리의 민속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신이 깃든다고 보고, 그 나무가 한 마을을 지켜보고 마을의 안녕을 수호해줄 수 있다고 봐서 그 나무에 예를 갖추는 행사가 목신제인 것이다.

이제는 2005년부터 어울림 풍물단의 주관으로 지내오고 있다. 처음에는 풍물단의 지신밟기 행사의 시발점으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2018년부터는 유성문화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채택되어 참석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한다.

원내동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의 유지, 구의원, 국회의원도 모두 참석하고 있으며 제를 지내고 난 후



준비한 음식을 주민들과 나누는 아주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원래는 제관을 풍물단 단원분들이 모두 해왔으나 문화원 행사가 되면서부터는 지역의 동장, 구의원, 올해는 조승래 의원이 제관을 맡았다.

'제'는 '고사'와 차이가 있다. 재밌는 에피소드로 절 예법에 관한 의견으로 풍물단 단원들간에도 초창기에 절을 두 번 해야한다, 아니다 세 번 해야 한다로 의견이 분분했었다고 한다. 그 해에 결정된 사회자의 결정에 따라 절을 두 번 하기도 세 번 하기도 했다는데, 절이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죽은 자에게는 두 번, 선신들에게는 지극한 공경의 의미로 세 번 하는 삼배가 맞다고 한다. 이걸 관찰시키기 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올해는 삼배를 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틀을 잡아줌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보급도 될 수 있고 가르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은 편의성이 아니고 예를 갖추는 것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행사를 이어온 목신제 추진위원장 남기준님과 목신제의 총무 겸 훌기(사회)를 맡고 계신 김희숙님의 말씀에서 재미와 긍지를 엿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농악을, 풍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는 역할을 잘 해서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지역사회가 같이 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매년 목신제를 지내 왔다고 한다.

해마다 목신제를 준비하고 있는 어울림 풍물단의 회장 유제도님, 총무 윤정옥님을 비롯한 25명의 풍물단 단원님들의 노고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계속 보여질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총무 김희숙(좌), 회장 남기준(우)



마을 안녕을 위한 탑립동 서낭제

김정근 통장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대전 유성구 탑립동 김정근 통장님! 통장으로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탑립동 서낭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적게나마 나름대로 마을을 위해서 제를 올리고 있다.

▣ 서낭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선조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서낭나무와 두 개의 돌탑에서 정월대보름 오후 5시에 주민들과 같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무탈한 한 해를 보내 주십사 하고 안녕을 기원 하는 것이지요.

▣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요?

20년 되었는데 마을에서 통장을 맡는 사람이 제주가 되어 제를 올리고 있지요. 선대 전에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고 마을 안에다가 제를 올렸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서낭당을 후에 동네 분들이 마을 초입에 서낭제 나무를 선정해 제를 올리기 시작했지요. 지역 유지분들이 신경 써서 탑을 쌓는 것도 지원해 주어 돌탑을 두 군데 세웠지요. 상차림을 등구나무와 돌탑 두 상을 준비합니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유성문화원에서 지원금 일부 나와 제상 차리는 준비를 하지요. 부족한 것은 마을



자산으로 조금씩 보태서 합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서낭제이고 아주 오랜 역사인데 요즘처럼 체계적으로 한 지가 한 20여 년이군요.

▣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하는데요?

선조들이 좋은 뜻으로 기리고 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정성껏 제를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통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지요. 이 맥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기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 어느 정도 참석하시나요?

참석은 주민들, 어르신들이지요. 지금 고령화되어 많은 분들은 참석을 못하세요. 한 30명 정도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열나흘날 제를 지내니까 보름 때는 회관에서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지요.

▣ 서낭제를 이어가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예전에 다른 관광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을 일을 좀 봐달라고 해서 배움도 없는데 수락했어요.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날 서낭제를 통해 마을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이 되는 일을 하니 보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에도 어르신들이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서낭당에 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와 기도하지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아랫자띠

대전 유성구 성북3동은 금수산 줄기에 자리잡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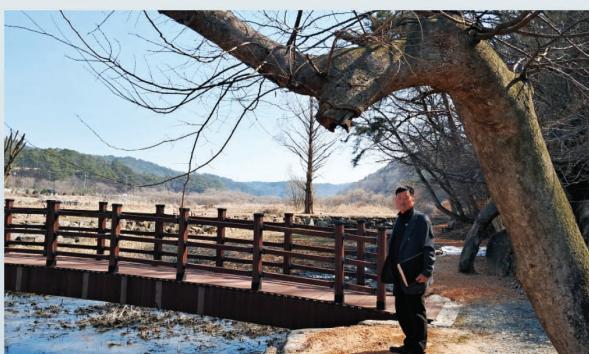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자연문화유산인 아랫자띠는 약사봉 끝자리에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결속하여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1927년 산신계를 만들어 1934년부터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첫 유사는 이종섭씨다. 2013년까지는 쌀 한가마로 시작했다. 2014년부터 유성구청, 유성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았다. 보다 풍성하게 주민화합을 이루고 마을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91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도 아랫자띠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성스럽게 제를 지내고 있다.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은 배제할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같이 이웃처럼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성북동 아랫자띠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2013년도 통장 일을 하면서부터 했어요. 2014년도에 유성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지요. 그전에는 쌀 한 가마 가지고 동네에 산신제를 지냈어요. 땅에서 농사지어 나오는 걸 작으나마 어느정도 준비해서 하니 많이 부족했지요. 그 후 지원받으면서 윷놀이도 하고 주민들에게 찬조도 받고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송승순 동계장



아랫자띠 산신제



성북3동 정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옛날식으로 생고기, 떡시루, 과일 등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지요. 그전에는 지금 옛날 어른들이 동네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정도로 유지되었지요. 지원을 받으면서 동네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재 형식으로 바뀌었지요. 거리제도 있고 풍물놀이도 했어요.

음식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요?

3~4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요. 지원비와 자체에서 상품 준비도 하여 윷놀이를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찬조금이 좀 들어와요. 봉사하고 나면 행사 자금으로 부족하진 않아요.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해서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어요.

산신제 아랫자띠가 어떻게 계승되면 좋을까요?

이 동네 체계가 행정적인 일은 통장이 하고 있어요. 동계장이 있고 아래에 노인회, 부녀회장이 있어요. 제가 참여하는 것도 동계장으로서 하는 거지요. 본계장, 통장 한 사람이 총무를 맡아서 보고 있어요. 동계장이 그만두면 또 다음에 통장이 또 동계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유지가 되죠. 지금은 문화재 형식으로 바뀌니까 동네 행사처럼 하고 있지요.



산신제 기록장부

산신제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을 살펴보았다. 지원을 받아 만든 정자가 우아하게 서 있다. 정자 주위에는 연못이 있고 산신제 지내는 장소가 있다. 연못이 있어 장소가 다소 협소한 느낌은 있다. 잘 조성해 놓으면 명소가 될 것이다. 황톳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산신제의 기록장부가 있다.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오래된 기록장이다. 역사적인 자료이다. 98년 된 기록장! 잘 보관하고 간직해 온 소중한 자료이다.

동네 주민이 화합하는 날이 산신제 지내는 날 아랫자띠이다. 그 날은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시골 동네에서의 전통적인 날이다. 마을 주민이 화합하고 안녕을 도모하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재미와 즐거움, 기쁨이 있는 날이기에~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가운데자띠, 김영달 총무와 이강승 통장을 만나다

고향 사랑의 온기로 품어낸 성북 2통의 전통문화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유성문화원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영달 총무(좌)와 이강승 통장(우)

▣ 자기소개와 맡은 역할에 대해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영달 총무

성북 2통 마을의 살림살이를 다루고 있는 총무 김영달입니다. 마을 살림살이라는 게 사실상 개인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할 때나,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바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충입니다.

이강승 통장

올해 1월에 통장이 되어 마을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새내기 통장 이강승입니다. 총무님과 힘을 합해 열심히 마을의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농로가 포장이 덜 되어있고, 도시가스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요. 점화 장치 시설도 미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도시가스를 들여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의 고민이네요.

▣ 행사의 공식적인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성북 2통 정월 대보름 거리제 행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성북동 자연문화유산 가운데자띠'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자띠'는 옛날 선조들이 쓰시던 말이에요.

▣ 올해 행사는 언제 진행하셨나요?

정월 대보름의 마지막 날인 2월 23일 저녁부터 2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풍물을 치며 제를 올리고,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 행사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옛날에 두계시장(현 팔거리시장)이 있었어요. 이 두계시장을 가려면 험한 산 등을 넘어서 가야 했지요. 그 길이 워낙 거칠고 멀어서 쉬어가는 도중에 돌탑을 쌓아 등을 기대곤 했었어요. 그렇게 쌓고 쌓인 돌탑들이 긴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돌탑에 새겨놓은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후손들에게 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조상님들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행사인 거지요.

▣ 행사는 몇 년째 진행되고 있나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행사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네요.

▣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지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 동네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원성취도 함께 빌어주고 있습니다.

▣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에서 150명 내외입니다. 그 중 80명이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행사를 계기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외부인이거나 합니다.

▣ 외부 사람들에게는 행사 홍보를 하는 건가요?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지만, 동네에 살았다가 타지로 떠난 사람들에게는 명절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행사 기간에 간단히 문자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

▣ 행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설화가 있나요?

현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소재한 팔거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쉬어가는 쉼터로 돌탑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 탑을 '용두탑'이라 명칭 하여 정월 대보름 행사 때

마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제를 지내게 됨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월 대보름에 행사하는 이유는 돌탑을 쌓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잡귀는 물러가고 선조들이 편안히 오갈 수 있는 창구를 닦아 놓는 거지요. 우리 마을에 잡귀신이 얼씬 거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 해의 평안을 바라는 거랍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보람이 있나요?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봉사의 일손이 부족한 게 있지요. 예전에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주부님들이 두 손 걷고 도와주시려 나오셨었는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돼서 선뜻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인력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예산도 넉넉지 않아 행사를 풍족하게 할 수도 없어요. 보람은 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방문하며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성북동 자연문화유상 아랫자띠도 있던데, 가운데 자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구’ 단위를 쓰지만, 옛날에는 ‘자띠’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구분했었어요. ‘자띠’라는 명칭에서 아랫동네(성북 3통)는 아랫자띠, 윗동네(성북 1통)는 윗자띠라 했습니다. 고등어로 치면 머리는 윗자띠, 몸통은 가운데



자띠, 꼬리는 아랫자띠인 셈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띠’라는 이름 하에 윗자띠, 가운데자띠, 아랫자띠 모두 우리 마을에 모여 잔치를 성대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각자 따로 행사를 쟁기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그만큼 규모도 작아졌지만요. 각자 마을에서 행사를 지낸 뒤, 여기 가운데자띠로 모여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 방식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문화원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 성북 2통 마을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차츰차츰, 어제보다 한 뼘씩 더 길어져 가는 낮의 길이 만큼, 성북 2통의 역사와 전통문화도 고향 사랑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가기를 소망 합니다.



옥녀봉 뒤로 도덕봉이 살짝 보이고 옥녀봉 왼쪽 능선 아래쪽에 화산 마을이 있다

수통골 ‘화산마을 옥녀봉 산신제’

도심 속 ‘450여년 보호수와 산신제’가 있는 마을

유성문화원 김옥배 기자

마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산 마을은 한밭대가 이사 오기 전 그 주변에 사셨던 분들, 수통골 주변과 옥녀봉 산자락 아래 사시던 주민과 외지에서 이사 온 주민 등 40여 호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녀봉 아래 수통골 주변으로 기존의 주민들과 외지의 분들이 흩어지고 모이면서 생성된 마을입니다.

행사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요?

제가 지금은 동계회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처음 이 마을에 올 때(94년)는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많고 규모도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전부터 1960년도 중반까지 화산 마을에 사시는 분 중 일부 몇몇 주민이 민속신앙에 따라 음력 1월 7일에 큰 소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간소하게 차리고 산신제를 올렸으나 1965년경 유성골프장이 허가되고 사유지가 되면서 출입 등의 문제가 생겨 개인에 의한 산신제가 중단되었습니다.



동계회장 장채호님

또한, 골프장 공사 때문에 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산세 또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려던 중 1970년대 중반에 화산 마을에서 40~50대 연령층의 남자가 한 해에 7~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옥녀봉 산자락 골프장 건설로 많은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중장비에 지형이 변경되고 산신제가 중단되어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마을 원로들의 걱정이 있어서 마을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론으로 1970년도 중반부터 산신제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50년 정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수통골 화산 마을 사시는 분들에게 우환 등이 없어지고, 수통골이 개발되며 한밭대가 이전 함으로 교통의 발달로 마을이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 해지게 되었습니다.

▣ 올해 행사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지요?

행사는 매년 음력 1월 7일에 마을에서 산을 조금 오르면 유성구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가 있는 곳의 아래쪽 제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호수 제단 주변을 철제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어 가까이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 45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덕명동 소나무 보호수'

▣ 보호수를 인터넷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 커보이진 않는데 어떤지요?

원래는 큰 소나무 3주, 작은 소나무 2주 등 5그루였으나 1970년도 중반쯤 많은 눈에 큰 소나무 3그루 중 2그루가 눈의 무게를 못 이겨 가지와 본줄기가 부러져 현재는 큰 소나무 1그루, 작은 소나무 2그루가 있으며, 큰 소나무 1그루가 1982년 유성구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큰 소나무는 수령이 450여년, 둘레가 3m, 수고가 13m로 약간 비탈진 곳에 서 있어 아래에서 하늘 쪽으로 올려다보면 대단하다는 탄성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 행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요?

행사 며칠 전부터 제를 지낼 준비를 합니다. 제를 준비할 여인들과 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거리를 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준비합니다. 행사 당일(음력 1월 7일 10시)에는 행사 장소에 필요 물건들을 옮겨 제단 위에 준비한 제물을 올리고 보호수 아래 제단에서 제문을 읽고 절을 하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문 음으로 되어 있는 제문이 무슨



음력 1월 7일 화산 마을분들이 모여 소나무 아래 제단에서 제를 올리고 모습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마을과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읽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 마을 회관에 모여 준비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면서 마을의 중요 안건과 행사들에 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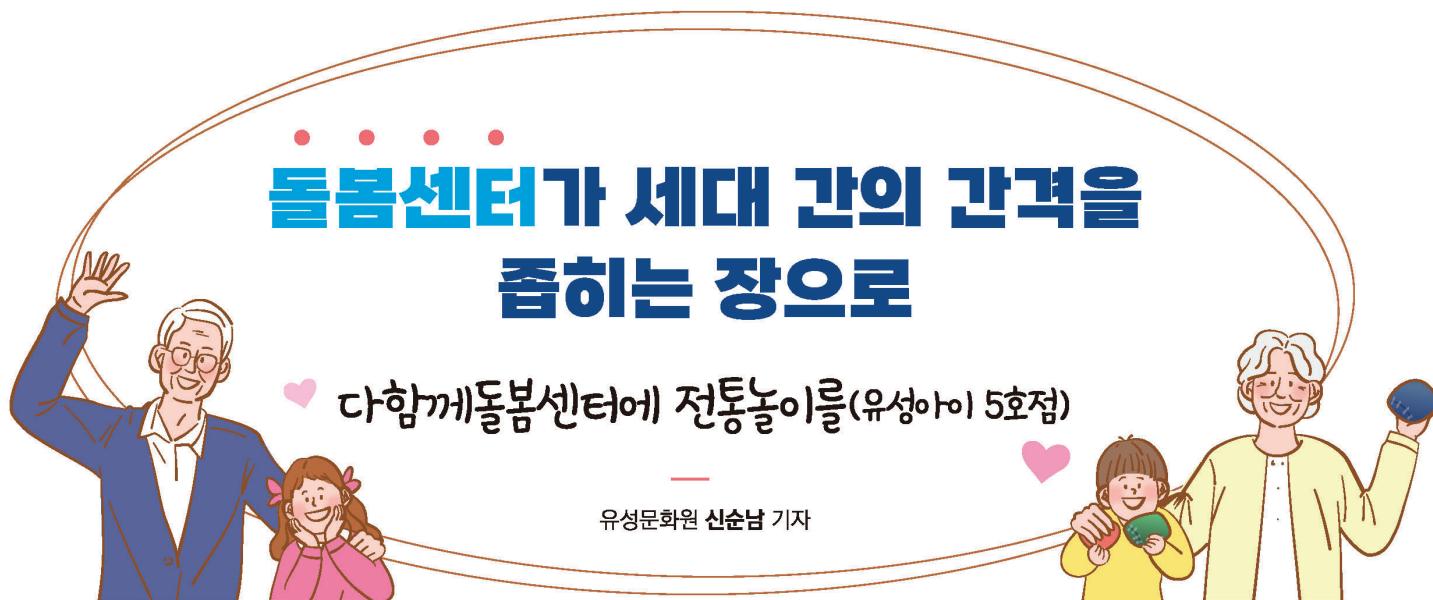
▣ 행사의 참여도와 열기는 어떠한지요?

여기가 변두리이기는 해도 광역시인데 점점 참여자가 줄어드는 걱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원 자체가 줄고 있는 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50대 중반 이전의 세대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도 15명 내외입니다. 당장 내년이나 후년은 어떨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전통 행사를 터부시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청과 동네의 주민 자치회 등에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적인 도움과 함께 자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동기와 열정이 식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흥미를 끌 만한 동기들이 만들어지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하겠지요.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社会의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저 나이 먹은 세대의 미신쯤으로 보기보다 마을 주변의 생명체들과 교감하고 귀하게 여기며 지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전통문화로 공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 저도 가까운 지인을 만나면 한번 이 소나무를 가까이서 직접 보기를 추천하고 다닙니다. 멀찍이서 보고서도 아~ 저기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였고 가까이서 보니 웅장하다고 할까 장엄하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 찾아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6



3월 14일 오후 4시 30분,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성이전통단(단장 한승일) 4명은 유성구 죽동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김지희)를 찾아 우리 전통 놀이를 함께 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통단 소개에 이어 10여 명의 어린이와 칠교놀이를 했다. 빠른 솜씨는 단원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의 전통 놀이 사방치기를 하는 어린이들은 외발로 뛰지 못해 넘어지거나 선을 밟아 실패하고 아쉬워했다. 오자미 놀이는 한쪽에서 던지고 반대편은 받아 바구니에 담아 많이 받는 팀이 승리하며 두 손으로 돌려받는 기술을 선보이는 전통단 할머니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는 아이도 있었다.

김 센터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5호점은 지난해 1월 개소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에서 교육부가 진행하고 돌봄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진행합니다. 똑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 유성문화원에서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함을 알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 자녀 시대에 디지털 문화에 빠진 어린이가 전통문화를 통해 어르신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지혜를 배우고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승일(유성이전통단) 단장은 “유성이전통단은 올해 협약이 된 수요처가 현재로서 24곳입니다. 수요처 수는 중간에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곳의 수요처를 돌면서 저희 유성이전통단이 느끼는 부듯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통 놀이는 어린이의 몸을 쑥쑥 자라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많은 놀이를 즐겼습니다.”라며 “오늘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준비했는데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즐거웠고 세대 간 격차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대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중앙동아리 관현악단 단장과의 인터뷰

유성문화원 조호근 기자



관현악단 단장 박동훈

관현악단 임원과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남대학교 중앙동아리 공연분과 소속 관현악단의 54대 단장 박동훈입니다. 관현악단에서는 51기 파커션 파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현악단의 대외적인 활동을 주도하며 동아리 부원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현악단은 1973년 창단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올해로 창단 51주년이고, 충남대학교 중앙동아리 중 유일한 오케스트라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방금 소개하실 때 ‘파커션 파트’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현악단은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악기의 종류 등에 따라 파트가 나뉩니다. 보통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로 분류하고, 현악기 안에서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처럼 세분화를 합니다. 관악기도 목관과 금관에 따라 목관이 클라리넷이나 플룻, 금관에는 트럼펫이나 호른, 트럼본



충남대학교 관현악단 창단 50주년 정기연주회

관현악단은 1년에 몇 번 공연을 진행하나요?

관현악단의 정기 행사는 크게 소연주회와 정기연주회로 나뉘는데, 올해는 소연주회가 4회 예정되어 있고, 매년 1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합니다. 정기연주회는 매년 정심화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현악단에서 외부 공연이나 대학 외 기관과 협업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관현악단은 현재 유성구 내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유성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서 봉사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올해는 소연주회 두 번을 백마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관객이 아무리 지인들을 많이 불러와도 조금 많이 비는 상황이 발생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소연주회도 그냥 지역 주민들 누구나 와서 관람하실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문화적인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같은 것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성문화원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유성문화원과 협업 의향이 있으신가요?

유성문화원이 어딘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인터뷰 제의를 주셨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연하는 동아리니 문화원의 무대를 이용해서 공연을 열면 지역사회분들에게도 이러한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협업 의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관현악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가족의 밤 연주회

국악을 잇는 대학생들을 만나다

중앙동아리 악도량 회장 및 악장과의 인터뷰



악도량 회장 이성현



•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악도량 회장을 맡고 있는 45기 대금 이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도량 악장을 맡고 있는 45기 대금 박수연입니다.

• 회장과 악장이 나뉘어있는 건가요?

네. 악도량은 총 5명의 임원진이 있는데, 회장, 총무, 홍보부장, 부회장 그리고 악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악장이 모든 음악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회장은 그 외 행정적이거나 외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죠. 부회장은 그런 회장을 지원해 주고 총무가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홍보부장이 연주회 홍보나 이벤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악도량’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충남대학교 국악동아리 악도량은 1976년대 창단한 국악 동아리입니다. 시작은 민족문화 지키기 운동이 시작됐던 시절 국악연구회 이후로 48년째 동아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처음부터 이름이 악도량이 아니었군요.

네. 대전 지역에 자리를 지어오던 국악인들이 계셨는데, 국악연구회라는 이름처럼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음악을 배우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제 한창 악보도 연구하고, 악기도 직접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와서 악도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여기 있는 악기들도 거의 다 명인분들로부터 사거나, 직접 만들어서 선배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악기입니다.

• 그렇다면 대전 지역 명인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중 이신가요?

그렇죠. 계속 연결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악도량의 악기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악기로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단소, 소금이 있습니다. 이외 장구같은 타악기도 있고, 아쟁도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 것 말고도 태평소, 생황과 같은 악기는 개인이 가져와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악기는 50개 정도 됩니다.

• 아무래도 다른 서양 악기에 비해서는 배우기 생소하거나 어렵지 않나요?

대학생들끼리 배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지난 뒤에 다시 대전지역의 전문 국악인 분들이나 전공자 분들과의 연결이 생겼어요. 이제 악우 중 실력이 있는 사람 몇명이 그런 분들께 가서 배우고, 그걸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2회 가을연주회

그리고 악도량이 오래된 동아리인 만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많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선배님들은 악기를 다루신 경력이 있어서 신입 악우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국악을 처음 접하더라도 악도량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장소와 기회가 많습니다.

• 악도량의 공연이나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악도량은 연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봄 연주회와 가을 연주회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악기를 처음부터 배우는 거다 보니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반면 주어진 시간은 촉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학에 따로 합숙을 하기도 하고요. 봄 연주회보다는 가을 연주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주로 대학 내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기울 연주회는 정심화홀에서, 그리고 봄 연주회는 한누리회관 소강당이나 법대쪽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악도량 국악 연습

• 대전의 명인과 전공자 외에 외부 지자체나 프로그램 활동 경험, 또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때 하고 싶으신 활동이 있나요?

재학생과 졸업생에 따라 나뉠 것 같은데, 재학생 경우는 대전 관현악단이라고, 전공자분들이 팀을 꾸려서 연주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전공자분께 직접 배우는 활동도 하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졸업생의 경우 이제 대전시무형 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대전 향제 출풍류라는 활동이 있어요. 여기서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활동하고 계시고, 대전의 국악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악도량은 정말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현재는 사실 국악 악기만으로 공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양악기나 타악기 등 다른 악기와 함께 협연하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만약 유성문화원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타 악기에 대한 지원이 돼서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화적인 특색에 맞춰서 풍물패 이런 분들과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7회 봄연주회



신입 기자단 인터뷰



김옥배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문화원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과 사진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생각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한 도시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발견하고 배우고 공유하고 전달하면서 갖게 될 이후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 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

유성은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들로 인해 새로운 건물과 도로가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모습을 바꿔 가는 뜨거운 변화의 도시이기에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나갈 필요성이 절실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문화와 이야기들을 새로운 세대에 바르게 전달하고, 현재와 융합이 되어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데 문화유성이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Q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롭거나 뿌듯했던 경험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거의 없지만 얼마 전 '화산마을 산신제'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피상적으로만 보았던 마을 주민들의 지나온 삶과 산신제에 얹힌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시선으로 동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수백 년 된 보호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 인터넷 사진으로만 보고 느끼던 것과 확연한 차이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접할 기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알게 될수록 이해와 공감의 폭은 넓고 깊어지는 듯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

기본에 충실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료와 기사의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것, 행사의 목적이나 의미가 쉽게 전달되도록 임팩트 있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 다양한 루트를 통해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모습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면이나 의미, 이야기들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집중하려 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유성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찾기 위해 정보가 있는 곳이면 열심히 찾아가 보려 합니다.



김은영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사진과 출판관련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2022년 대전광역시 블로그 공모전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2023년에 다양한 기관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성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024년 기자단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 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지역의 문화나 전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성구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재 그리고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전통행사들을 취재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롭거나 뿌듯했던 경험

대전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크고 작은 행사를 발걸음 하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경력단절 여성 혹은 가정주부로만 살아오다가 제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삶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문화유성과 같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책자와 홍보자료 그리고 관공서 홈페이지를 자주 둘러보는 편입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기도 하고 도서관의 홍보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입 기자단 인터뷰



 김재중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새롭게 들어온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유성문화원 기자단은 현재 기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유성문화원이 제가 재학 중인 학교 근처에 있어서 오다가 몇 번 보긴 했는데, 실제로 유성문화원에 연고가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성에 4년째 거주하면서 알게 된 것은 유성엔 다양한 문화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동기들은 물론 심지어 유성에 거주하는 동기들마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몰랐던 유성의 새로운 면에 대해 알려주고자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학보사에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자면, 기사를 되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신문에 사용하는 폰트 하나까지 저작권과 관련돼 있어, 설불리 사용했다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저작권 없는 폰트와 사진을 찾는 게 아니더군요. ‘당연한 소리만 하는 거 아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아는 노하우는 이 정도인데 이번 유성문화원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으려 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

타 기자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기자단 담당자님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예상보다 훈훈해 부담 없이 기자단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유성문화원 기자단을 권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슬슬 취업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면서 솔직히 유성문화원 기자단 활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기자단 활동에 임할 것이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성구의 명소들을 꼭 한 번 다루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나이가 들수록 역할은 다양해집니다. 역할만큼, 그 수만큼 책임감을 수반하는데요. 가정·경제 활동으로 얻은 역할이 아닌,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 인물 등을 취재하며 새로운 동기부여,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

지난 1월,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열린 ‘유성시장, 잊혀질 역사에 대한 기록’ 특별 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성시장’이었지만, 전시를 보며 유성 시장과 관련한 역사, 문화, 사람들의 일상을 접했습니다. 이에 문화유성을 통해 우리 주변에 오랜 시간 함께하며 우리의 일부가 된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인지, 이전 모습과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아직 나만의 노하우나 Tip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사를 작성하는지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못 본 부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유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성’ 책자에 바라는 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생겼을 때,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온라인 뉴스, 신문, 잡지를 통해 소식을 알고자 노력했는데요. ‘문화 유성’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

오는 12월,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유성구 문화원 기자단 활동이 좋은 경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습니다.





신입 기자단 인터뷰



조호근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대학교 내 문학동아리에 들어가 활동 중인 대학생입니다. 문화유성과 기자단을 알게 된 것 역시 이 문학동아리의 지인이 유성문화원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 되므로 모집 공고를 찾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 대학 및 대학가는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유성구의 여러 행사를 비롯하여 대학 내의 많은 축제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성구 내에서 다시 개최되고, 또 앞으로 개최할 많은 축제와 행사가 유성구와 대전의 시민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유성문화 기자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 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

유성구의 대학과 유성 시민을 연결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유성구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흥미를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유성, 그리고 대전에서 열리는 다양한 컨셉과 방향의 행사를 취재하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유성 책자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유성구의 행사와 연계하며 여러 공간에 문화유성을 비치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시민의 흥미를 끌만한 흥미로운 코너를 게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글을 쓰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지만 글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퇴고입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취재 대상이 인터뷰에 긍정적으로 임했을지라도 이를 실는 기자의 글이 올바르게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받은 정보를 어떻게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듬을지, 그리고 최대한 본래 인터뷰의 내용과 의도를 잘 살릴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번의 고민과 퇴고 작업을 거치는 것이 기자단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글쓰기를 좋아하여 다른 방향의 작문 경험이 여럿 있으므로 이를 마냥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익숙하게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실이,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줄 수 있구나' 싶어 기쁩니다.

대전 역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이 알게 모르게 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해 사라지는 일을 건져 올려 문화유성에 싣고 싶습니다. 유성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행사와 이슈를 취재하여 지역시민에게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이 이어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태어난 고향보다 더 많은 삶을 유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성문화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성문화원 기자단 모집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유성문화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소식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행사는 해피클래식, 정월 대보름제, 유성문화원 전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유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 모습을 유성구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자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 및 알리고 싶은 부분

작년 유성문화원 정기문화답사 프로그램으로 군산과 익산으로 다녀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3기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정기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참석하며 직접 경험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수신제 뿐만 아니라 유성학춤, 길놀이, 온천착정놀이 등 유성구 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3기 기자단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3기 기자분들과 더불어 함께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망원경대신 사진과 글로 기록하며 유성문화원의 <문화유성>과 함께 하는 2024년 한해 보내고 싶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유성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유성이, 유성문화원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행사 안내와 소식을 미리 알아둡니다. 기사를 쓰기 이어서는 행사에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함께 경험해야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사진행하며 나눠주는 유인물과 책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문화유성 발행된 것들을 읽으며 새로운 기사거리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콘서트



4/13(토) 10:00 1층 전시실

내 자녀의 인간관계
- 소통과 조화로 크는 아이들

이재걸 강사



5/17(금) 14:00 3층 라운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 이름그림과 삶의 이야기

박석신 작가



7/12(금) 19:00 3층 라운지

블록으로 나를 만나다
- 조각 맞추기와 예술이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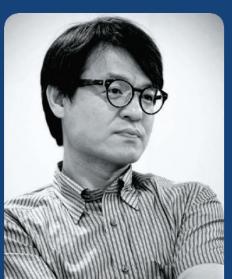
진형준 작가



9/20(금) 14:00 2층 다목적실

드라마로 보는 인생
-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윤석진 교수



11/7(목) 19:00 2층 다목적실

내 인생 음악에 실어~
- 힐링클래식의 향연

한동운 감독



4/26(금) 14:00 3층 라운지

시대 읽어주는 남자
- 급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서기

김홍섭 부소장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전)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전)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6/14(금) 14:00 2층 다목적실

밥 한번 먹자!
- 한식문화의 씨앗, 쌀 이야기

정혜정 교수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장 역임
알버트넬슨 마르퀴즈 공로상 수상

8/9(금) 10:00 3층 라운지

미디어시대의 독서교육
-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강이숙 강사

독서코칭강사
대전시교육청 학부모강사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 독서지도강사

10/11(금) 14:00 2층 다목적실

슬기로운 환자생활
- 의사와 환자사이

김기덕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대전선병원검진센터장
대한생활습관병학회 수석학술이사

12/13(금) 19:00 2층 다목적실

나이듦에 대한 고찰
- 희망으로 걷는 마음 걸음마

윤정애 강사

심리학박사
마인드앤바디브릿지코리아 대표
전)대전보건대 교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린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 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 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2024년 유성문화원 봄학기 시간표

요일	강의시간	예체능실(4층)	전통문화실(4층)	취미교실(3층)	세미나실(3층)	라온마실(3층)	다목적실(2층)
월	10:00 ~ 12:00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4.5	가락장구단 이춘옥 7.5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7.5	배우기 쉬운 아코디언 김은순 9.0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9.0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6.0
	13:00 ~ 15:00	경기민요 이순임 4.5	어반스케치 신지혜 7.5				
화	10:00 ~ 12:00	청풍명월 윤민숙 6.9		한글서예 윤병건 7.5	포크통기타(초급) 9:30 ~ 11:00 이석진 9.0		
	13:00 ~ 15:00	진도복춤 김원경 9.0		문인화 박경학 5.7	포크통기타(고급) 11:00 ~ 13:00 이석진 9.0		
수	15:30 ~ 17:30		시조창 박학미 6.0		포크통기타(중급) 14:00 ~ 16:00 이석진 9.0		
	10:00 ~ 12:00	김숙자류 입춤 김연의 9.0	경서도민요 & 평복농요 오현숙 5.7	멧생 & 수채화 김해숙 9.0			
	13:00 ~ 15:00		판소리 지유진 9.0		오카리나 한연호 9.0		
목	15:30 ~ 17:30		사군자 김영호 9.0				
	10:00 ~ 12:00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9.0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5		우쿨렐레 백선경 9.0		
	13:00 ~ 15:00	한국무용(목요) 이현숙 6.0		유화 송채례 10.5			
	15:30 ~ 17:30						
금	18:30 ~ 20:30	댄스스포츠(초/중급) 이영린 9.0	가야금 권정옥 6.9		해금(목요) 정다솔 6.9	대금과 단소 이재천 6.9	
	10:00 ~ 12:00	태평무(오전) 강소정 9.0		한국화 김진순 7.5			
	13:00 ~ 15:00	태평무(오후) 강소정 9.0					
토	10:00 ~ 12:00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5.7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9.0	해금(토요) 정유라 6.9		
	12:40 ~ 14:40	댄스스포츠(고급) 이영린 9.0	유성농요 김숙희 4.5	팬플루트(오후) 박상봉 9.0			

* 월 -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외 나머지 신규강좌는 미개설 / 4 ~ 6월 접수기간중 인원미달시 완전 폐강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54만원(full 9시 ~21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 조명 무료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89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1시 종일 09시~17시 full 09시~21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지침) 	무료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1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지침) 	
3층	라온마실 무대/좌석 50석/ 자유석 50석	16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무료, 이동식 빔프로젝터 3만원 (노트북 사용자 지침) 소형피아노 3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 부담) 	
4층	전통문화실	13만원			음향 없음	
4층	예체능실	13만원			음향 무료	

문화유성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그라피

유성문화원 캘리그라피 강사 심혜순

발행인 이재웅

발행일 2024년 3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행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화 042)823-3915~6

팩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육성

2024
Vol.227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